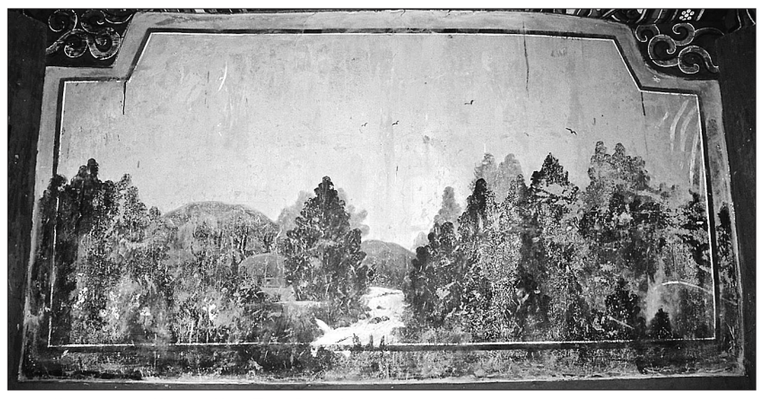

진도 쌍계사 서측 벽체서 발견된 서양식 산수도.

진도 쌍계사엔 '서양식 벽화'가 있다

진도학회, 12월 16일 쌍계사 조명 학술대회

진도 쌍계사의 불상과 불화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양식으로 그려진 사찰 벽화가 새로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병국 동국대 교수는 12월 16일 진도학회가 '소치 허련의 예술세계와 운림산방 및 쌍계사' 주제로 개최한 동계 절례회에서 쌍계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벽화들을 소개했다.

이들 벽화는 진도 쌍계사 대웅전 본존불을 이안하는 과정에서 내벽의 그림 흔적들이 확인되며 그 존재가 밝혀지게 됐다. 총 19점이 발견됐고, 가로 3m, 세로 1.3m의 대형 벽화부터 가로 1m, 세로 0.6m의 크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벽화의 특징은 전통 불화기법이 아닌 서양의 유화기법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특히 서측 벽체 상부서 발견된 산수도는 이 같은 특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반적으로 동양적 산수화가 아닌 실경(實景) 주제로 그려낸 산수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쌍계사 벽화의 산수화는 우리 산수의 실경을 주제로 자유로운 회화적 구도와 기법으로 그려졌다"며 "단색조의 색상이지만, 확실한 명암법과 투시법이 구사된 서양화법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정황적 근거도 제시됐다. 진도 쌍계사에 인접한 운림산방은 소치 허백련의 화실로 사용됐고, 이후 5세대에 걸쳐 남도 화단의 중심이 됐다. 근대 서양화가 1세대인 김홍식, 오지호, 김환기 등이 여수 · 신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도 쌍계사의 서양식 벽화가 그려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정 교수는 "쌍계사 대웅전 벽화의 새로운 발견은 불교 회화사와 불교 문화의 큰 변혁으로 보여지며, 20세기 초 진도지방의 문화 · 예술 분야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선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쌍계사는 기록의 일실로 인해서 그 이전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조선조 후기에 기록된 사찰지에 따르면 1648년(인조 26)에 재건됐다. 법당과 시왕전(十王殿)이 차례로 건립되고, 희장 등 조각승에 의해 대웅전에 목조삼존불상 조성, 시왕전에 주존인 지장보살을 비롯해 33구 조각상들이 조성됐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수리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 1년과정 교육생 모집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이 1년 과정의 '2017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인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하는 등 무료 교육이 원칙이며 교육생은 실습재료 제공과 기숙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분야는 △기초과정 7개 종목(옻칠, 소목, 단청, 배첩(褙貼), 도금, 철물, 모사) △심화과정 7개 종목(옻칠,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 △현장위탁과정 7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석조각)으로 3개 과정 21개 종목이다. 모집인원은 기초과정 10명 내외,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이다.

접수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0일간이다. 개강은 3월 초다.

신성민 기자

"아암 · 초의 茶脈, 원응 · 응송에 전수"

박동춘 소장, 12월 16일 '제다' 세미나서 계보 분석

조선 후기 대흥사 아암 스님과 초의 스님으로 인한 제다법의 전승 현황을 되짚는 논문이 발표됐다.

문화재청은 12월 1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다(製茶)'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사진〉이 '사찰문화에 따른 제다 전승의 현황과 특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 소장은 논문에서 사찰의 다맥이 어떻게 전승됐는지를 대흥사를 중심으로 살폈다.

박 소장에 따르면 한반도에 수행과 차를 연관지어 활용한 것은 7세기 도당구법승들에게서 비롯됐으며, 9세기 이후 이 같은 차 문화는 확산됐다. 특히 구산선문 개창 이후 사찰은 차 문화를 주도했고, 제다 기술도 한층 개량됐다. 차에 대한 안목이 높은 승려들로 인해 왕실과 관료, 문인들도 자연스럽게 차를 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 말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진 음다(飮茶)의 폐단은 조선 건국 이후 왕실에서 차가 퇴출되는 요인이 됐다. 또한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차 문화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다시 차에 관심이 일어난 것은 조선 후기 대흥사 아암과 초의 스님에 의해 주도됐다. 특히 초의 스님은 차 이론을 구축하면서 대흥사로 면면이 이어진 제다법을 복원해 '초의차'를 완성시켰다. 또한, 초의차는 초의 스님과 교류했던 경화사족(京華士族, 번화한 한양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에게 전해지며 확산됐다.

대흥사 중심으로 茶僧 활동
교류한 경화사족에 전파돼
여타 사찰 차문화 조사 '숙제'

실제 추사 김정희는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에게 보낸 차품은 심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만큼 좋다"고 쓰기도 했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과 교류했던 사대부들은 초의차를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확신했다"며 "초의 스스로 '육안차는 맛이 뛰어나고 몽산차는 약효가 뛰어나다. 우리 차는 아마도 두 가지를 겸했다. 만약 이찬황이나 육우가 있다면 그들은 내 말이 옳다고 여기리라'고 천명한 것은 자신의 차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초의차의 제다 원리는 아암의 제다법과 함께 그들에게 이어졌으며, 혼란했던 근현대에도 단절없이 이어졌다.

박 소장은 "대흥사 다풍을 이었던 승려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의 자취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드물다.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스님은 범해와 그의 제자 금명, 원응, 응송으로 이어진 정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현대 제다법은 불회사, 백양사, 보림사에도 조사된 바 있지만 불교 정화 이후 민멸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후 이 같은 사찰들의 제다법의 전승 관계도 조사 ·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다'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는 정순일 교수(원광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 '제다' 기법과 전승문화의 특징(박희준, 동아대) △일제강점기 이후 '제다'의 지속과 변화(강순형, 前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제다'의 민간전승 현황(이경희, 울산대) △해외 제다관련 문화재 사례를 통한 한국 '제다'의 전승 방안 모색(고연미, 원광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다'의 보존 · 전승 방향(김기원, 경남과학기술대)이 발표됐다. 이후에는 연제영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한 문화재청은 "향후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해 '제다'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량사 건칠여래, 석굴암 본존불 계승

미술사연구회 12월 14일 학술대회 개최

대의 · 옷주름 등 유사점 많아
양식사的으로도 8~9세기 作
"한국 最古 건칠여래상 확실"

지난 11월 16일 보물 1919호로 지정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사진〉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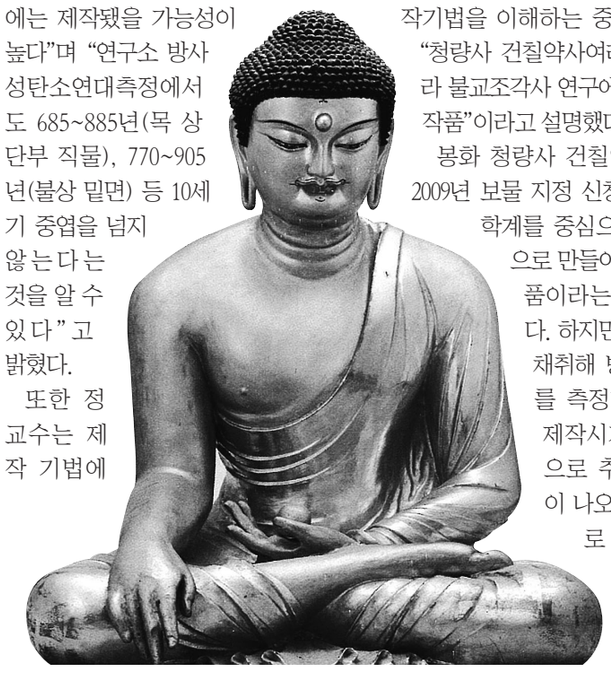
미술사연구회가 12월 14일 주최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전국학술대회'에서는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제작시기 검토 등의 고찰이 이뤄졌다.

정은우 동아대 교수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편견우단과 항마촉지인의 기본적 형식에서부터 신체에 밀착된 대의, 무릎에 흘러내린 옷주름과 사이에 접힌 옷자락 등이 거의 비슷하다"며 "청량사 건칠불의 눈동자에 수정이 감입된 것에 따라 고려시대로 분류했지만, 최근 익산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불상의 눈동자에 유리를 감압한 흔적이 나왔다. 이 같은 기법은 백제에서부터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적 특징만 고려한다면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석굴암이 제작되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에는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소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서도 685~885년(목 상단부 직물), 770~905년(불상 밑면) 등 10세기 중엽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제작 기법에서도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제작된 건칠상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두 판을 잇대어 제작했는데 이는 처음 발견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두 판을 잇대어 제작한 기법은 한국 건칠불의 시원적 제작기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연구에 큰 과제를 던진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2009년 보물 지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20세기 기법으로 만들어져 근대 시기 작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불상의 직물을 채취해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직물의 제작시기가 770~945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7년만에 보물로 지정돼 조성 연대 논란은 일단락됐다.

신성민 기자

고려사경 2점 등 보물 지정 신청

서울시, 리움 소장본 추진

서울시는 고려사경 2권과 고려말 문학가 이숭인의 '도은선생시집' 활자본 등을 국가문화재 보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6',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5' 등 고려사경 2점과 팔만대장경 인본 '대승법계무차별론'도 보물로 신청했다.

또한 '도은선생시집'은 조선 태종 때인 1406년 고려말 문학가 이숭인(1074~1151)의 시문과 그의 시문을 칭송한 국내 저명 문인과 중국 사신의 서발을 엮어 만든 문집이다.

신청본은 활자 계미자본(癸未字本)으로 인쇄된 소수에 해당해 2006년 보물로 지정된 계명대 목판본보다 먼저 간행돼 학계에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855년 조성된 불화 '마하연 제석천룡도'를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했다. 이밖에도 도선사 석조관음보살 등 3건의 문화재는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신성민 기자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